

투데이 칼럼

###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를 보며 전북도민이 느낀 생각

82.65%라는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지난 6월 4일 국회 의사당 로런더홀에서 한 제21대 대통령 취임사를 보며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외로 고통받던 우리 전북이 드디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몇가지 소회를 기술해본다.

먼저 지방 소멸 위기에서 전북발전에 대한 희망을 보게된다.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씀은 우리 전북도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전북은 그동안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지방 소멸의 위기를 직면해 왔다. 하지만 우리 전북은 풍부한 일조량과 넓은 땅, 강한 바람을 가진 재생에너지의 보고다. 새만금을 비롯해 광활한 농지와 해안선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최적지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이 선거기간 두번이나 찾은 유세장과 취임사에서 약속한 ‘에너지 고속도로’가 실현된다면, 전북은 더 이상 낙후된 지방이 아닌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관련 기업들이 유치될 것이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두번째로 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게 된다.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취임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라는 대목이었다. 역대 정부들도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중심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며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어 기대된다.

“상징의 기회와 과실을 지역에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이라는 철학은 우리 전북이 그동안 목말라했던 정책 방향이다. 전북은 풍부한 농업 자원과 도내 여러곳에 산재한 많은 문화유산,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한 도민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동안 이런 자원들이 제대로 활용될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는 이전의 다른 대통령처럼 말의 성찬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실천의지가 앞장서기 때문이다.

세번째로는 K-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서의 가능성을 보게된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광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라는 대통령의 말씀도 전북도민으로서 주목하게 된다. 우리 전북은 판소리와 농악 등 전통문화의 보고이자 전주국제영화제로 대표되는 현대문화

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메카이기도 하다.

전주 한옥마을은 오래전부터 매년 타지인이 1천만명 넘게 찾고 있으며 이 미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K-문화 체험의 성지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전주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등 K-푸드와 원조도 우리 전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문화산업 지원 정책이 실현되 기반 한다면, 전북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콘텐츠로 세계 시장에서 크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네번째로는 농업 강국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주목하게 된다.

무엇보다 전북도민으로서 기대되는 것은 새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춘 정책 방향이다. 전북은 대한민국 최대의 곡창지대이자 친환경 농업의 선도지역이다. 기후변화 시대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전북의 청정 농산물은 새로운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팜과 친환경 농업 기술을 결합한다면, 전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 강국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크게

제공할 것이다.

입진외판대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처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중심국가 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기대를 건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약속도 전북도민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동안에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다르다고 생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국민과의 소통 정치가 실현된다면, 우리 전북도민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제안들이 국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짧지만 강하고 임팩트 있는 대통령 취임사를 들으며 전북도민으로서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들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물론 말보다는 실행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지만 적어도 그동안 수도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5년간 이재명 새정부가 약속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전북이 재생에너지 중심지이자 문화강국, 그리고 스마트 농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재명 새 정부와 함께 전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함과 함께 기대를 하게 된다.

### 사설

####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 국가 책임제’는 치매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정책이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는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나눠지겠다는 취지다.

치매환자 증가율은 가파르게 늘어 2024년 100만 명을 넘어선 뒤 2050년에는 27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역사회의 치매 관리 사업을 총괄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확충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의 252개 시, 군, 구 보건소에 설치되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의 치매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치매 환자와 가족은 센터에서 치매 예방, 교육, 조기 검진 등 1:1 맞춤형 상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돌봄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

검사의 경우 66세부터 4년마다 받던 것을 2년마다 받도록 검사 주기를 단축시켰다.

치매 노인의 장기요양 서비스도 확대된다. 기존 장기요양 등급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이 결정되어, 신체기능이 약화한 경증 치매 노인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치매 환자에 특화된 치매 안심형 시설도 확충된다. 치매안심형 시설이란,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특히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 증상이 동반되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체계적인 교육과 양성을 통한 전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어느 종교단체 수사망 좁혀

검찰은 국내 어느 종교단체 쪽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부정 청탁했다는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 오면서 일부 관련 인사들이 출국을 시도하는 상황도 포착되는 등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진법사 전씨의 부정 청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이 해당 종교단체 총재와 김 여사의 비서를 출국 금지한 걸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종교단체 인사가 최근 공항에서 출국하려고 시도하다가 돌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종교단체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용’이라며 금품을 건넨 게 “총재의 결재를 받아 한 일”이라고 검찰에 진술했기 때문이다.

종교단체 측은 총재가 출국 금지된 걸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5월 13일, 관련

인물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다 탑승을 스스로 철회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인물이 누군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어느 언론사에 총재가 13일 오전 국내 본부를 떠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재가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총재가 출국을 못 하고 돌아와선 ‘병원을 다녀왔다’ 말했다”고 했다.

총재의 출국 시도가 있었는지 불은 질의에 총재가 공항에 간 적이 없고 당일 병원에 다녀왔다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총재가 해외로 출국을 시도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

건진법사 전 씨로부터 사법 가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건 대통령실 행정관도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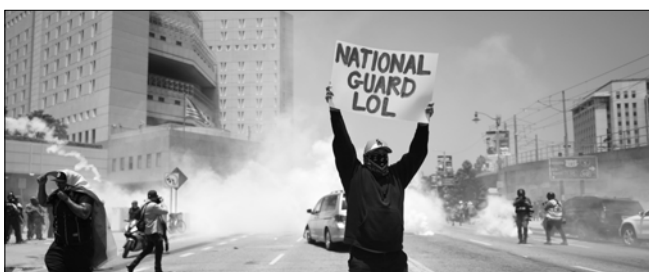
### 사건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K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작품상 등 6관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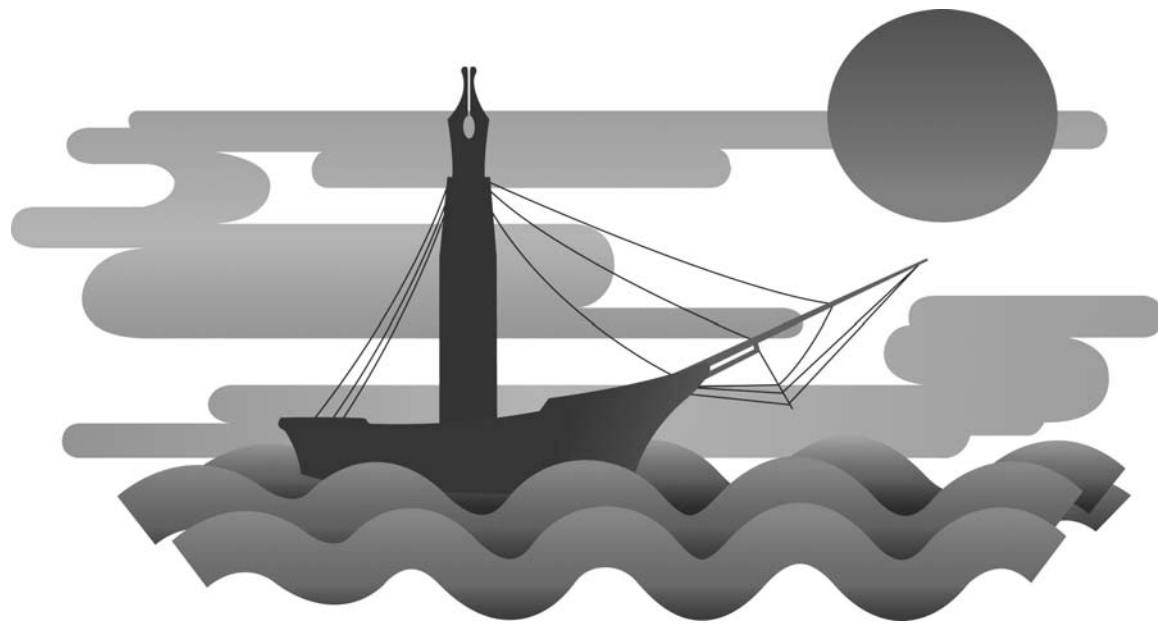
K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Maybe Happy Ending) 제작·출연진이 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고 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이날 작품상, 극본상, 작사·작곡상, 무대 디자인상, 연출상, 남우주연상 등 6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 최루 가스 속 시위하는 LA 시위대



8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인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최루 가스 속에서 시위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